

제천 박도수가옥 및 정원태가옥의 창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indows and Doors of Jecheon Park Dosu's House and Jeong Wontae's House

Author 이완건 Lee, Wan-Geon / 정회원,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indows and doors of Jecheon Park Dosu's House and Jecheon Jeong Wontae's House, designated as a Important Folklore Cultural Heritage in Jecheon. It aim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traditional house, and to the conservation policy of architectural Heritage in Jecheon. This study used the research methods of the literature analysis and the field survey, and it was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windows and doors in each building.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wooden board door(板張門) of a hinged door type is found in the kitchen of An-chaе, and the Bongchang(封窓) and Gwangchang(光窓) towards the courtyard is installed for ventilation and lighting. Secondly, the slender-ribbed windows and doors(細筋窓戶) of double swinging type towards the courtyard is installed in An-bang, and Merum(遠音) is found. Thirdly, the framed panel door(骨板門) of a hinged door type towards the backyard is found in Daechung(大廳). Lastly, the slender-ribbed windows and doors of double swinging type towards the outside is found in Sarang-bang of Sarang-chaе, and Merum(遠音) is installed. Especially, double skin windows and doors is installed in Jecheon Park Dosu's House.

Keywords 창호, 중요민속문화재, 제천 박도수가옥, 제천 정원태가옥
Windows and Doors, Important Folklore Cultural Heritage, Jecheon Park Dosu's House, Jeong Wontae's Hous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한 쉼터로서의 주거는 오늘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 왔고 그 결과 지역마다 특색 있는 주거들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인 주택 속에는 건립 당시의 인문학적 상황과 건축술 등이 녹아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이를 연구함으로써 당시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고 전통건축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연구 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라는 연속된 시간 속에서 이러한 단편들이 제대로 맞추어질 때 우리는 과거의 진실 된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조들의 삶이 녹아 있는 제천지역의 국가 지정문화재인 전통주거를 대상으로 입면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창호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서 동시대 전통주거의 연구에 일조하고 제천시 건축문화재의 보존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창호의 개폐방식, 기능, 종류 및 크기 등을 실측조사 하여 전통주거의 공간별 창호 특성¹⁾을 찾고 이를 통해 제천 이외의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지역 전통주거의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북부지역인 제천시를 대상으로 전통주거의 지역적 특성을 찾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 먼저 제천시에 소재하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2채 즉, 제천 박도수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과 제천 정원태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을 연구대상²⁾으로 하여 창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제천시 전통주거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³⁾의 후속 연구로

- 1) 창호의 형태 및 크기 등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능한 공간 구성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2)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국가 지정문화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며 제천시에는 현재 2채의 중요민속문화재가 존재한다.
- 3) 이완건, 제천시 전통주거의 창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4호, 2013.8 - 제천시에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총 9채의 전통주거가 있으며, 이 중 시·도 지정문화재인 7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이를 통하여 제천지역 전통주거 특히, 창호 연구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 및 연구자료 등의 분석, 현장답사 및 실측조사(2013년 10월, 2014년 8월)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공간별 창호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전통주거에서 창호의 의미, 형태 및 구조 등을, 3장에서는 제천 박도가옥과 제천 정원대가옥의 건축 환경 및 창호 현황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공간별 창호 특성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전통주거 창호의 일반적 고찰

2.1. 전통 창호의 의미

전통건축의 입면은 3분(三分)된 수직체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각기 그에 해당하는 건축요소가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분류체계는 우주를 질서화 하는 전통사회의 우주관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⁴⁾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에서 유호의 『목경』을 인용하여 “가옥에는 삼분(三分)이 있다. 들보 이상은 상분(上分)이요, 집 바닥 이상은 중분(中分)이요, 기단은 하분(下分)이다. 들보, 서까래, 기둥, 네모서까래, 계단은 모두 척도가 서로 대응을 이룬다.”⁵⁾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창호(窓戶)는 벽체와 함께 중분에 해당하며 전통건축의 중요한 입면 구성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입면은 건물의 얼굴이자 외형의 절대적 구성요소로서 시각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채광과 통풍 등의 위생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출입구 또한 만들어진다. 이러한 입면은 건축의 시대성, 지역성과 양식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⁶⁾ 이렇듯 창호는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전통주거의 창호는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 채 설치되고 있다.

2.2. 전통 창호의 형태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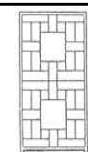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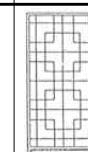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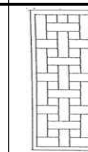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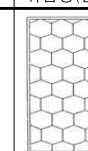


(1) 창호의 형태 및 종류

건축물의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창호가 가지는 격도 달라진다. 또한 어떤 건축물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표 1>과 같이 살창은 부엌에, 세(띠)살창, 용자창, 완자창, 아자창 등은 주택과

궁궐의 침전을 비롯한 내전과 사찰의 요사체에 설치하였다. 반면 꽃살 창호는 궁궐의 정전과 사찰의 대웅전 같은 전각에 설치하였다. 다시 말해 창호의 형태는 건축의 격을 상징했던 것이다. 창호의 살 짜임새는 그 짜임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냈으며 용자창, 완자창, 귀자창 등은 모두 길상을 의미하였다.⁷⁾

본 연구는 현존하는 제천 정원대가옥(반가)과 제천 박도가옥(부농주거)의 사례를 통해 이 지역 전통주거의 창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 전통주거에 사용되는 대표 창호 종류(제천 김세균고가 등)

관장문*	골판문*	아자창(문)#	완자창(문)*	숫대살창(문)	살창*
					
정자창(문)*	용자창(문)*	세(띠)살창(문)*	귀갑창(문)	맹장지*	불받기*
					

*_제천 김세균고가, #_제천 박도가옥

(2) 창호의 기능과 구조

창호는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문짝이 1짝이면 독창, 2짝이면 쌍창이라 부르며, 위치에 따라 분합, 영창, 흑창, 갑창, 광창, 장지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여닫는 방법에 따라 여닫이, 미닫이, 미서기, 들어열개, 벼락닫이 등으로 분류되며, 설치되는 장소와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되었다.

조선후기 고급 전통주거의 외벽은 보온을 위해 바깥쪽에서부터 여닫이의 쌍창(덧문), 미닫이의 영창, 미닫이의 흑창, 불박이의 갑창의 순서로 3겹의 창호를 설치하였다. 제천 박도가옥에서는 안채의 다른 방들과는 달리 건넌방에 <표 2>와 같이 쌍창(여닫이)+영창(미닫이)+갑창(불박이)으로 된 2겹의 창호를 설치하여 공간의 성격에 따라 창호의 기능과 구조가 다를 수 있다.

창호는 벽체의 기둥 및 인방들 사이에 문인방과 문설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문틀인 문울거미를 만든다. 문울거미 속에는 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창살이 채택되었으며 이때 문울거미의 면, 모접기, 창살은 소목(小木)들에 의해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1>과 같이 조선말의 반가인 제천 김세균고가(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8호) 마루방 창호에서 살대는 투밀이, 문울거미의 면은 쌍사, 모서리는 실모로 쇠시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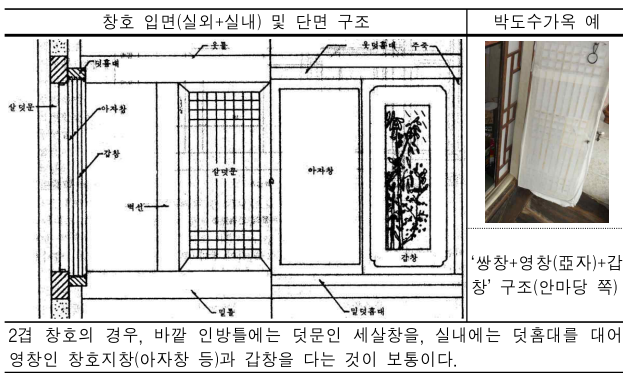
4) 강영환, 傳統建築의 立面體系 : 그 象과 形, plus, 8904, p.153

5) 徐有槩, 林園經濟志, 산수간에 집을 짓고, 안대회 엮음, 초판, 돌베개, 파주, 2005, p.205

6) 박언근, 한국건축사강론, 초판, 문운당, 서울, 1998, p.136

7)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초판, 대원사, 서울, 2012, p.15

<표 2> 창호의 구조⁸⁾ (제천 박도수가옥 안채의 건넌방)



<그림 1> 『제천 김세균고가』 마루방의 세살창호 (창호 외관(左), 창살(中) 및 문올거리 부분(右))

3. 제천 박도수가옥 및 정원태가옥의 창호 현황분석

3.1. 제천 박도수가옥 및 정원태가옥의 건축 환경

(1) 제천시 금성면의 지리환경

충북지역은 역사적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각축이 심했던 전략적 요충지로 삼국의 문화와 통일 후의 신라 문화가 혼재해 있는 특색 있는 지역이다. 또한 한반도의 중심부 내륙에 위치해 소백산맥과 차령산맥, 남한강과 금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문화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제천은 충주를 비롯한 괴산과 단양 등지를 포함한 남한강 수계권에 속한다.⁹⁾

제천은 충청북도에서 북동부지역에 해당하며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등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지역이고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띠고 있다. 또한 강원도 영월군과 원주시, 경상북도의 문경시, 충주시와 단양군 등과 인접해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다. 제천 박도수가옥과 제천 정원태가옥이 위치한 금성면(錦城面)은 제천시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충주호와 금수산이 인접해 있다. 본래 청풍군의 북쪽이라 하여 북면이라 불리다가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금성면, 1980년에 제천읍이 제천시로 승격되면서 제원군 금성면이 되었고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제천시 금성면이 되었다.¹⁰⁾ 북부지역은 두חק천의 지류가 북류하고

남부지역은 구룡천과 고교천이 남류하여 남한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월림저수지와 산곡저수지가 있어 하류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곳곳에 분지지형이 발달하였다.

전통주거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채광과 조망, 출입을 위해 설치되는 건축의 구성요소인 창호 또한 기후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창호의 크기 등을 조사함으로써 추후 타 지역과의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제천 박도수가옥¹¹⁾과 정원태가옥의 입지 및 배치

<표 3>과 같이 제천 박도수가옥이 위치한 금성면 구룡리는 사곡리, 적덕리, 진리 등과 함께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대지의 북쪽에 낮은 야산이 있고 남쪽으로 고교천의 지류와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북고남저(北高南低)의 경사진 대지로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국을 하고 있다. 또한 지형이 높은 북쪽에 ‘ㄱ’자의 안채, 낮은 남서쪽과 남동쪽으로 각각 ‘一’자의 사랑채와 아래채가 위치해 전체적으로 남서향(艮坐坤向)한 ‘튼□’자 배치를 하고 있다.

<표 3> 제천 박도수가옥 및 제천 정원태가옥의 입지 및 배치 현황

문화재명	소재지		배치 坐向	종목 비고
	시기	건축물 구성		
제천 박도수가옥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	튼□자	중요민속문화재 137
	20세기 초	안채+사랑채+아래채	艮坐坤向	민가(무농)
제천 정원태가옥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21	튼□자	중요민속문화재 148
	19세기 초	안채+사랑채	癸坐丁向	반가



<그림 2> 『제천 박도수가옥』의 항공사진(左) 및 마을 전경(右)



<그림 3> 『제천 정원태가옥』의 항공사진(左) 및 마을 전경(右)

제천 정원태가옥은 <그림 3>과 같이 대지의 북쪽, 동

8) 장기인, 목조, 초판, 보성각, 서울, 1996, p.158

9) 김경표, 한국의 건축문화-충북편, 초판, 기문당, 서울, 2012, pp.5-6

10) 제천시지편찬위원회, 제천시지(上), 초판, 대유출판사, 제천, 2004, p.221

11) 문화재청의 명칭은 ‘제원박도수가옥(提原朴道秀家屋)’, 제천시에서는 ‘제천 박도수가옥’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화재의 지정이 1984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인 1991년에 제원군이 제천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쪽과 서쪽의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북고남저(北高南低)의 경사진 대지이다. 남쪽에 월림저수지가 있어 관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표 3>과 같이 경사진 북쪽 높은 곳에 ‘ㄱ’자의 안채와 낮은 남쪽에 ‘ㄴ’자의 사랑채를 위치시켜 전체적으로 남향(癸坐丁向)한 ‘튼口’자 배치를 하고 있다.

3.2. 제천 박도수가옥 및 정원태가옥의 창호 현황

(1) 연구대상 전통주거의 현황

<표 4>와 같이 연구대상인 제천 박도수가옥과 제천 정원태가옥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¹²⁾로 제천을 대표하는 전통주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부농주거(박도수가옥) 및 반가(정원태가옥)로서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말의 시대적 특징들이 배치 및 공간 등에 잘 드러나 있다. 지역의 타 전통주거¹³⁾와는 달리 현재의 장소에서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어 당시의 주거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창호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연구대상 전통주거의 창호는 공간별(안채, 사랑채, 아래채) 설치위치에 따른 개폐방식(여닫이, 미닫이, 미서기, 붙박이 등), 기능(쌍창, 영창, 장지 등), 살대의 구성에 따른 창호 종류 및 크기들을 조사하였으며 창호의 크기는 문설주를 제외한 순수한 개구부의 크기를 실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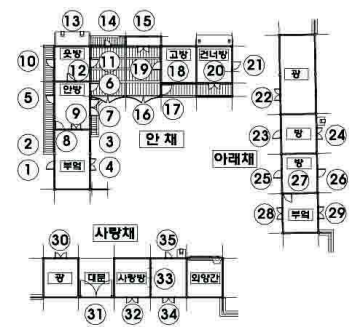
<표 4> 제천 박도수가옥 및 제천 정원태가옥의 건축 현황

문화재명	건축물 현황(‘-’는 꺾이는 부분임)			등별 건립시기
	종류	형태	평면 구성	
제천 박도수 가옥	안채	ㄱ자	부엌+안방+웃방+대청+고방+건넌방	1864년
	사랑채	—자	광+대문+사랑방+외양간	20세기 초
	아래채	—자	광+방+부엌	20세기 초
제천 정원태 가옥	안채	ㄱ자	작은부엌+안방+웃방+대청+골방+건넌방+부엌	19세기 초
	사랑채	ㄴ자	광+작은사랑+대청+큰사랑+방+부엌	19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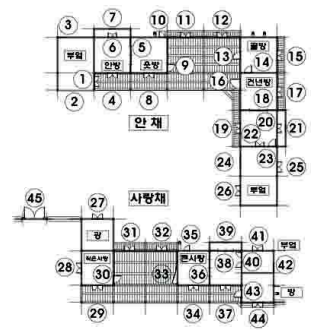


(2) 연구대상 전통주거의 창호 사례조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등의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6조
- 제천시에는 현재 총 9채의 전통주거가 있으며 제천 박도수가옥과 제천 정원태가옥을 제외한 7채의 전통주거들은 모두 중주댐 건설로 인하여 이전·복원된 상태이다.



<그림 4> 『제천 박도수가옥』의 안채(左上)·사랑채(左下) 전경 및 창호 평면도(右)



<그림 5> 『제천 정원태가옥』의 안채(左上)·사랑채(左下) 전경 및 창호 평면도(右)

<표 5, 6>은 안채, 사랑채, 아래채(박도수가옥)의 순서로 그리고 각 채에서는 주요 실인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 등(안채의 경우)의 순서로 창호를 조사하였다.

제천 박도수가옥은 <그림 4>와 같이 안채, 사랑채, 아래채가 ‘튼口’자로 되어 있으며, 안채는 ‘부엌+안방+웃방+대청+고방+건넌방’이 ‘ㄱ’자형으로 된 서울형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표 5>와 같이 고방은 안마당 쪽으로 살창, 대청 쪽으로 1짝 골판문이 설치되어 있고, 건넌방은 안마당과 외부로 2겹의 창호(쌍창+영창, 갑창 포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랑채는 ‘광+대문+사랑방+외양간’의 ‘—’자형 평면으로 2칸의 사랑방은 전면의 바깥마당 쪽으로 머름을 짠 2겹의 창호(쌍창+영창, 갑창 포함)가 설치되어 있다.¹⁴⁾

제천 정원태가옥은 <그림 5>와 같이 ‘작은부엌+안방+웃방+대청+골방+건넌방+부엌’의 ‘ㄱ’자형 안채와 ‘광+작은사랑+대청+큰사랑+방+부엌’의 ‘ㄴ’자형 사랑채가 ‘튼口’자로 구성되어 있다. 남부 및 서울형이 혼합된 평면구성으로 공간에서는 반가의 특징¹⁵⁾이 보이나 창호에서는 외부에 쌍창만을 설치해 덧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랑채에서 큰사랑과 작은사랑의 외부 바깥마당 쪽으로 쌍창 하부에 머름을 짜 정면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 <표 5>와 같이 최근에 안방의 안마당 쪽 창호에 사창과 영창을, 대청의 전면에 4짝 분합문을 추가 설치하였다.
- 사랑채에서 대청을 사이에 두고 큰사랑과 작은사랑으로 구분되는 등 공간구성 및 의장에서 특징들이 발견된다.

<표 5> 『제천 박도수가옥』의 창호 현황

번호	안채(1)	안채(2)	안채(3-上)	안채(3-下)	안채(4-上)	안채(4-下)
창호 사진						
위치	부엌					
개폐방식	여닫이	불박이	벼락닫이	불박이	불박이	여닫이
기능(문짝 수,머름)	독창(1)	광창(다락)	광창(다락)	봉창	봉창	쌍창(2)
형태(살대)	관장문	세로살	정자살	세로살	세로살	관장문
크기(WxH)	670x1400	820x430	610x500	940x610	910x570	910x1470
안채(5)	안채(6)	안채(7)	안채(8)	안채(9)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미닫이	여닫이	여닫이
독창(토머름)	독창(1)	쌍창(머름)	사창*	영창,감창*	독창(다락)	쌍창(벽창)
세살	세살청판	세살	-	용자살	맹장지	맹장지
640x1120	660x1400	600x1210	900x1070	750x1090	620x1300	880x450
안채(10)	안채(11)	안채(12)	안채(13)	안채(14)	안채(15-上·下)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독창(1)	독창(1)	독창	광창	독창(머름)	쌍창	쌍창(머름)
세살	세살청판	세살	홍채(上)+세로살(下)	골판문	골판문	세살
640x1360	660x1340	600x1210	750x1090	660x1080	970x500	970x600
안채(16)	안채(17)	안채(18)	안채(19)	안채(20)	안채(21)	
대청	고방	고방	고방	고방	고방	고방
들어열개 분합(4)*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세살청판	독창(1)*	광창	독창(1)	쌍창(2)	영창,감창	독창(1)
2240x1910	660x1400	2370x480	760x1360	760x1360	890x1050	600x1270
안채(21)	아래(22)	아래(23)	아래(24)	아래(25)	아래(26)	아래(27)
건넌방	방1	방1	방1	방1	방1	방1
미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영창,감창	독창(1)	독창(1)	쌍창(2)	독창(1)	독창(1)	독창(1)
아자살	관장문	세살	세살	세살	세살	세살
600x1270	1100x1500	660x1460	1090x1350	760x1360	600x1280	560x1280
아래(28)	아래(29)	사랑(30)	사랑(31)	사랑(32)	사랑(33)	
부엌	광	대문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미서기
쌍창(2)	쌍창(2)	쌍창(2)	쌍창(2)	쌍창(머름)	영창,감창	창지, 불발기(4)
관장문	관장문	관장문	관장문	세살	아자살	아자살
1100x1770	1100x1420	1240x1730	1920x2360	1080x1350	2540x1650	
사랑(34)	사랑(35)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쌍창(머름)	영창,감창	독창(1)				
세살	아자살	세살				
1080x1350	710x1440					

*안방의 7번 창호(사창과 영창)와 대청의 16번(분합), 17번(독창) 창호는 2012년에 추가 설치됨.
-크기(WxH)에서 'W'는 개구부의 '폭', 'H'는 개구부의 '높이'를 말함.

<표 6> 『제천 정원태가옥』의 창호 현황

번호	안채(1)	안채(2)	안채(3)	안채(4)	안채(5)	안채(6)
창호 사진						
위치	안방					
개폐방식	여닫이	작은부엌	불박이	여닫이	미서기	여닫이
기능(문짝 수,머름)	쌍창(다락)	광창(다락)	광창(다락)	쌍창(토머름)	장지(4)	쌍창(반침)
형태(살대)	관장문	정자살	세로살	세살	맹장지	현재 無
크기(WxH)	940x1270	1190x560	460x300	1070x1240	2390x1780	1100x1300
안채(7)	안채(8)	안채(9)	안채(10)	안채(11)	안채(12)	안채(13)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안방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광창(반침)	쌍창(쌍창(토머름)	독창(1)	독창(1)	쌍창(2)(토머름)	쌍창(2)(토머름)	독창(1)
세로살	세살	세살	세살	골판문	골판문	세살청판
370x310	1060x1240	700x1470	650x1380	1060x1230	1060x1230	670x1360
안채(14)	안채(15)	안채(16)	안채(17)	안채(18)	안채(19)	안채(20)
골방	골방	골방	골방	골방	골방	골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미서기	여닫이	여닫이
독창	쌍창(2)	독창(1)	쌍창(토머름)	장지(4)	쌍창(토머름)	쌍창(반침)
맹장지	세살	세살청판	세살	맹장지	세살	세살
660x1360	1090x1230	740x1640	1090x1230	2550x1780	1080x1220	1090x1340
안채(21)	안채(22)	안채(23)	안채(24-上)	안채(24-下)	안채(25)	안채(26)
건넌방2	건넌방2	건넌방2	건넌방2	건넌방2	건넌방2	건넌방2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광창(반침)	쌍창(벽창)	독창(다락)	광창	봉창	쌍창(2)	쌍창(2)
세로살	맹장지	맹장지	정자살	세로살	관장문	관장문
500x440	920x440	390x1280	470x490	1350x360	850x1650	1300x1850
사랑(27)	사랑(28)	사랑(29)	사랑(30)	사랑(31)	사랑(32)	사랑(33)
광	작은사랑	작은사랑	작은사랑	작은사랑	작은사랑	작은사랑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들어열개
쌍창(2)	쌍창(토머름)	쌍창(머름)	독창(1)	쌍창(머름)	쌍창(머름)	분합(3)
관장문	세살	세살	세살청판	골판문	골판문	정자(복합)
1050x1420	1080x1240	1080x1240	730x1720	1080x1240	1080x1240	2330x1900
사랑(34)	사랑(35)	사랑(36)	사랑(37)	사랑(38)	사랑(39)	사랑(40-左)
큰사랑1	큰사랑1	큰사랑1	큰사랑1	큰사랑1	큰사랑1	큰사랑1
여닫이	여닫이	미서기	여닫이	미서기	불박이	여닫이
쌍창(머름)	독창(1)	장지(4)	쌍창(머름)	장지(반침)	광창(반침)	독창(다락)
세살	세살	맹장지	세살	맹장지	세로살	맹장지
1080x1230	640x1300	2370x1820	1080x1230	1360x1460	400x260	590x1350
사랑(40-右)	사랑(41)	사랑(42)	사랑(43)	사랑(44)	사랑(45)	
큰사랑2	부엌	부엌	부엌	부엌	부엌	부엌
여닫이	여닫이	벼락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독창(벽창)	쌍창(2)	광창(다락)	독창(머름)	쌍창(토머름)	쌍창(2)	쌍창(2)
맹장지	관장문	정자살	세살	세살	관장문	관장문
520x590	970x1480	850x450	580x1180	990x1170	1480x1720	

-크기(WxH)에서 'W'는 개구부의 '폭', 'H'는 개구부의 '높이'를 말함.

4. 제천 박도수가옥 및 정원태가옥의 창호 특성 분석

4.1. 제천 박도수가옥의 창호 분석

(1) 안채

<표 7> 『제천 박도수가옥』의 공간별 창호 분석표(*' 추가설치)

공간	실명	개폐방식(횟수)	기능(횟수)	형태(횟수)	개수
안채	대청	H(4)*,W(1)*	O(2)*,T(2),D(1)*	骨(2),廳(2)*,細(1)	5(2*)
	안방	H(5),S(2)*	O(3),T(2),X(1)*,Y(1)*	細(2),廳(1),肱(2),用(1)*	7(2*)
	옷방	H(3),F(1)	O(3),G(1)	細(2),廳(1),直+用(1)	4
	건넌방	H(2),S(2)	O(1),T(1),Y(2)	細(2),亞(2)	4
	고방	H(1),F(1)	O(1),G(1)	骨(1),直(1)	2
	부엌	H(2),F(3),L(1)	O(1),T(1),G(3),B(1)	板(2),直(3),井(1)	6
사랑채	사랑방	H(3),S(2),DS(1)	O(1),T(2),Y(2),J+Z(1)	細(3),亞(3)	6
	광	H(1)	T(1)	板(1)	1
아래채	대문	H(1)	T(1)	板(1)	1
	방	H(5)	O(4),T(1)	細(5)	5
	광	H(1)	O(1)	板(1)	1
범례	부엌	H(2)	T(2)	板(2)	2
	개폐방식	여단이(H), 미단이(S), 미서기(DS), 불박이(F), 벼락단이(L), 들어열개(W)			
	기능	독창(O), 쌍창(T), 봉창(B), 광창(G), 장지(J), 분합(D), 영창(Y, 갑창 포함), 후창(K), 불발기(Z), 사창(X)			
형태	세살(細), 세살청판(廳), 정자살(井), 용자살(用), 아자살(亞), 판장문(板), 골판문(骨), 세로살(直), 맹장지(肱)				



<그림 6> 안채 옷방의 2단 광창



<그림 7> 안채 대청의 사당 벽창(하부 머름) 쪽 살창(세로살) 창호(쌍창+영창)



<그림 8> 안채 고방의 안마당



<그림 9> 안채 건넌방의 2겹

1) 부엌

안마당 쪽은 여단이의 2짝 판장문과 상부에 불박이의 봉창, 부뚜막 옆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불박이의 봉창과 그 상부의 다락에는 벼락단이의 정자살 광창이 있다. 장독대가 있는 뒷마당 쪽은 여단이의 1짝 판장문과 상부 다락에 불박이의 세로살 광창이 설치되어 있다.

2짝 판장문의 크기는 910mm(폭)X1,470mm(높이)이고 1짝은 670mmX1,400mm으로 안마당 쪽이 뒷마당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뒷마당 보다는 안마당이 기능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엌 상부의 다락에 채광과 환기를 위해 광창이 설치되었는데 뒷마당 쪽은 불박이의 세로살을, 안마당 쪽은 벼락단이의 정자살 창호를 설치해 안마당 쪽의 창호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안방과 옷방

안방은 안마당 쪽으로 쪽마루와 연결된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16)와 대청 뒷마루와 연결된 1짝 여단이 세살청판 창호가 있으며 세살 창호 하부에는 머름이 짜여있다.

16) 2012년에 미단이의 사창과 용자살 영창이 설치되었다.

뒷마당 쪽은 쪽마루와 연결된 여단이의 1짝 세살 창호이며 하부에 토머름이 있다. 2짝의 크기는 900mmX1,070mm, 1짝은 660mmX1,400mm(안마당 쪽)와 640mmX1,120mm(뒷마당 쪽)이다. 머름 종류 및 창호 크기로 보아 안마당 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부엌 상부의 다락은 출입을 위해 여단이의 1짝 맹장지를, 벽장은 여단이의 2짝 맹장지를 설치하였다.

옷방은 안방으로는 여단이의 1짝 세살 창호를, 대청 쪽으로는 여단이의 1짝 세살청판(660mmX1,340mm) 창호를 설치하였다. 또한 뒷마당 쪽은 쪽마루와 연결시켜 여단이의 1짝 세살(640mmX1,360mm)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 같은 뒷마당 쪽의 안방(토머름 설치)과 옷방(머름 없음) 창호를 보면 공간의 위계 및 기능에 따라 입면구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옷방의 북쪽 벽면에 2단의 광창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3) 대청(17)

대청의 뒤쪽으로 하부에 머름을 짠 여단이의 1짝 골판문(660mmX1,080mm), 인접하여 여단이의 2짝 골판문(상부)과 세살문(하부)으로 된 사당벽장이 있다. <그림 7>과 같이 사당벽장 창호 하부에 머름(18)을 짜 공간의 위계를 높이고 있다.

4) 고방과 건넌방

대청과 건넌방 사이의 고방은 안마당 쪽으로 통풍 및 채광을 위해 <그림 8>과 같이 세로살의 불박이 광창이 수평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으며 대청으로는 여단이의 1짝 골판문(760mmX1,360mm)이 있다.

건넌방의 창호는 안마당과 아래채 쪽으로 <그림 9>와 같이 외부에서 쌍창→영창과 갑창 순으로 2겹의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쌍창은 모두 여단이의 세살 창호이며 영창은 아자 창호이다. 크기는 2짝이 890mmX1,050mm(안마당 쪽), 1짝이 600mmX1,270mm(아래채 쪽)이다.

(2) 사랑채 및 아래채

사랑채는 사랑방의 전면에 머름을 짠 2겹의 창호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2칸의 사랑방은 미서기의 4짝 장지(아자살 불발기)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전면 바깥마당 쪽으로 여단이의 2짝 세살(1,080mmX1,350mm) 창호인 쌍창과 아자살로 된 미단이의 영창(갑창 포함)이 설치되어 있다. 안마당 쪽은 여단이의 1짝 세살(710mmX1,440mm) 창호가 있다. 안채와는 달리 사랑채는 안마당 쪽 보다 바깥에서 보이는 창호의 격을 높이고 있다. 대문과 광은 모두 여단이의 2짝 판장문이다.

아래채는 '광(2칸)+방1+방2+부엌'의 '一'자형 평면으로 부엌은 안마당과 바깥으로 모두 여단이의 2짝 판장문을

17) 2012년에 대청 전면에 4짝 분합의 세살청판 창호와 고방 앞 뒷마루 쪽으로 여단이의 1짝 세살청판 창호가 추가 설치되었다.

18) 사당벽장은 성리학적 윤리관의 흔적이며, 반가인 청풍 후산리교가의 제정 창호에서도 발견된다.

설치하였고 안마당 쪽(1,100mmX1,770mm)이 바깥쪽(1,100mm X1,420mm) 보다 높이가 높았다. 또한 인접한 방에서 부엌으로 연결된 여단이의 1짝 세살 창호(560mmX1,280mm)가 있으며, 2개의 방들은 안마당과 바깥쪽으로 대부분 여단이의 1짝 세살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광은 여단이의 2짝 판장문이다.

제천 박도수가옥은 안채에서 대청과 건넌방 사이에 고방이 있는 것이 특이하며 안마당과 대청 쪽으로 <표 5>와 같이 불박이의 살창과 여단이의 골판문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건넌방은 외부로 2겹의 창호(쌍창+영창, 갑창 포함)¹⁹⁾를 두고 있으며 대청은 성리학적 유교관의 흔적인 여단이의 골판문과 세살문으로 된 사당벽장이 특징이다. 사랑채에서는 2칸의 사랑방이 미서기의 장지로 상호 연결된 것과 외부로 2겹의 창호(쌍창+영창, 갑창 포함)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4.2. 제천 정원태가옥의 창호 분석

(1) 안채

<표 8> 『제천 정원태가옥』의 공간별 창호 분석표

공간	실명	개폐방식(횟수)	기능(횟수)	형태(횟수)	개수
안채	대청	H(2)	T(2)	骨(2)	2
	안방	H(2), DS(1), F(1)	T(2), G(1), J(1)	細(1), 盲(1), 直(1)	4
	웃방	H(3)	O(2), T(1)	細(3)	3
	건넌방	H(6), DS(1), F(1)	O(2), T(4), G(1), J(1)	細(3), 廳(1), 盲(3), 直(1)	8
	골방	H(3)	O(2), T(1)	細(1), 廳(1), 盲(1)	3
	부엌	H(5), F(2)	T(3), G(3), B(1)	板(3), 井(2), 直(2)	7
사랑채	대청	H(2)	T(2)	骨(2)	2
	큰사랑	H(5), DS(2), F(1), W(1)	O(3), T(2), J(2), G(1), D(1)	細(3), 盲(4), 井(1), 直(1)	9
	작은사랑	H(3)	O(1), T(2)	細(2), 廳(1)	3
	방	H(2)	O(1), T(1)	細(2)	2
	광	H(1)	T(1)	板(1)	1
	부엌	H(1), L(1)	T(1), G(1)	板(1), 井(1)	2
범례	대문	H(1)	T(1)	板(1)	1
	개폐 방식	여단이(H), 미서기(DS), 불박이(F), 벼락달이(L), 들어열개(W)			
	기능	독창(O), 쌍창(T), 봉창(B), 광창(G), 장지(J), 분합(D)			
형태	세살(細), 세살청판(廳), 정자살(井), 판장문(板), 골판문(骨), 세로살(直), 맹장지(盲)				



<그림 10> 안채 골방과 건넌방의 세살청판 창호
<그림 11> 사랑채 대청의 들어열개
<그림 12> 사랑채 큰사랑과 방의 머름

1) 부엌

안채에는 안방에 딸린 1칸의 작은부엌과 건넌방의 2칸 부엌이 있으며 작은부엌은 한햇부엌 형식으로 안마당 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상부의 다락은 안방의 전면 툇마루 쪽으로 여단이의 2짝 판장문(940mmX1,270mm)을, 안마당

쪽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해 여단이의 2짝 정자살 광창을, 북쪽 뒷마당 쪽으로 세로살의 불박이 광창을 설치하였다. 건넌방의 2칸 부엌은 안마당(1,300mmX1,850mm)과 뒷마당(850mmX1,650mm) 쪽으로 여단이의 2짝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마당 쪽 출입구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뚜막 옆으로 세로살의 불박이 봉창과 그 상부 다락에 여단이의 정자살 광창이 안마당 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2) 안방과 웃방

안방은 안마당 쪽으로 툇마루와 연결된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1,070mmX1,240mm)가 있으며 하부에 토머름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실내 반침에 2짝의 창호가 설치되었던 흔적(현재 창호는 없음)이 발견되고 반침의 외벽 상부에 채광을 위한 세로살의 불박이 광창이 설치되어 있다. 웃방 또한 전면 툇마루 쪽으로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1,060mmX1,240mm, 하부 토머름 설치)를, 대청 쪽으로 여단이의 1짝 세살 창호(700mmX1,470mm)를, 그리고 북쪽 뒷마당 쪽으로 여단이의 1짝 세살 창호(650mmX1,380mm)를 설치하였다. 또한 안방과는 미서기의 4짝 장지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3) 대청

대청의 전면은 개방되어 있고 북쪽 뒷마당 쪽으로 하부에 토머름이 설치된 여단이의 2짝 골판문(1,060mm X1,230mm)이 설치되어 툇마루와 연결되고 있다.

4) 골방과 건넌방

골방은 대청 쪽으로 <그림 10>과 같이 여단이의 1짝 세살청판 창호(670mmX1,360mm)를, 텃밭이 있는 뒷마당으로 툇마루와 연결된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1,090mm X1,230mm)를, 건넌방과는 여단이의 1짝 맹장지로 연결되어 있다.

골방과 인접한 건넌방 또한 대청 쪽으로 여단이의 1짝 세살청판 창호(740mmX1,640mm)를, 텃밭이 있는 쪽으로 툇마루와 연결하여 토머름이 있는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1,090mmX1,230mm)²⁰⁾를, 그리고 인접한 건넌방과는 미서기의 4짝 장지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부엌과 인접한 건넌방은 안마당 쪽으로 토머름이 설치된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1,080mmX1,220mm), 실내 반침에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와 반침의 외벽 상부에 세로살의 불박이 광창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부엌 상부의 다락 창호는 출입을 위해 여단이의 1짝 맹장지를, 벽장은 2짝 맹장지를 설치하였다.

(2) 사랑채

1) 사랑방

2칸의 큰사랑은 대청 쪽으로는 <그림 11>과 같이 들

19) 쌍창은 여단이의 세살 창호, 영창은 미단이의 아(亞)자 창호이다.

20) 동일한 위치와 크기의 골방과 건넌방의 뒷마당 쪽 창호는 토머름 설치를 통해 공간의 위계 차이를 볼 수 있다.

여열개의 3짝 분합 정자살 창호를, 외부 바깥마당 쪽으로는 머름을 짠 여단이의 2짝 세살(1,080mmX1,230mm) 창호를, 안마당 쪽으로는 여단이의 1짝 세살(640mmX1,300mm) 창호를 설치하였고 인접한 방과는 미서기의 4짝 장지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실내 반침의 창호는 4짝 미서기 문이며 외벽 상부에 채광을 위한 세로살의 불박이 광창이 설치되었다. 부엌 상부의 다락 출입 창호는 여단이의 1짝 맹장지를, 벽장은 1짝 맹장지를 설치하였다.

작은사랑 또한 큰사랑과 같이 외부 바깥마당 쪽으로 머름을 짠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1,080mmX1,240mm)를, 대청 쪽으로 1짝 세살창판 창호(730mmX1,720mm)를, 그리고 대문 쪽으로 토머름이 있는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1,080mmX1,240mm)를 설치하였다.

2) 부엌 등

출입문은 여단이의 2짝 판장문(970mmX1,480mm)이며 상부 다락은 채광을 위해 벼락단이의 정자살 광창을 설치하였다. 부엌과 인접한 방은 외부 바깥마당의 쪽마루 쪽으로 <그림 12>와 같이 토머름²¹⁾이 있는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990mmX1,170mm), 대청의 뒷마루 쪽에는 머름을 짠 여단이의 1짝 세살 창호(580mmX1,180mm)가 설치되어 있다. 작은사랑과 인접한 광은 안마당 쪽으로 여단이의 2짝 판장문(1,050mmX1,420mm)을, 대문은 여단이의 2짝 판장문을 설치하였다.

제천 정원태가옥은 대청을 중심으로 큰사랑과 작은사랑이 대청으로 구획된 사랑채의 공간구성에서 유교적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큰사랑과 작은사랑은 전면으로, 대청은 안마당 쪽으로 각각 머름²²⁾을 짠 여단이의 2짝 세살 창호와 골판문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큰사랑에서 대청으로의 들어열개 3짝 분합 정자살 창호는 반가의 모습이 드러나는 창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천시의 국가 지정문화재인 제천 박도수가옥과 제천 정원태가옥을 대상으로 창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안채의 부엌은 여단이의 판장문과 부뚜막 옆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불박이 봉창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부엌 상부의 다락에는 벼락단이 또는 여단이의 정자살 광창이 안마당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 부엌의 판장문이 뒷마당 보다 안마당 쪽이 큰 것과 부뚜막 옆 세로살 봉창 및 다락의 정자살 광창이 안마당을 향해 있는

것은 안채에서 안마당의 공간적 중요성 즉, 기능에 따른 이용빈도와 그에 따른 안마당으로의 개방적 입면구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안채의 안방은 안마당을 향해 머름을 짠 여단이의 세살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박도수가옥의 안방과 정원태가옥의 건넌방에는 다락과 벽장이 있으며 이들 창호는 여단이의 맹장지로 구성되어 있다. 옷방은 대청 또는 안마당과 연결되며 안마당 쪽으로는 안방과 같이 여단이의 세살 창호를, 대청 쪽으로는 여단이의 세살 또는 세살창판 창호를, 뒷마당 쪽으로는 여단이의 세살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

셋째, 안채의 대청은 뒷마당 쪽으로 머름을 짠 여단이의 골판문이 설치되어 있다. 건넌방은 안마당 쪽으로 여단이의 세살 창호를 설치하였고 특히, 박도수가옥은 쌍창과 영창의 2겹 창호를 설치하였다. 정원태가옥의 건넌방은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서기의 장지로 상호 연결되고 있다.

넷째, 사랑채의 사랑방은 외부로 머름을 짠 여단이의 세살 창호, 특히 박도수가옥은 실내 쪽에 영창을 추가하여 2겹 창호로 되어 있다. 2칸 사랑방은 상호 미서기의 4짝 장지를 설치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고 안마당 쪽으로 여단이의 세살 창호를 설치하였다.

정원태가옥의 대청은 전면을 창호 없이 개방하고 안마당 쪽으로 머름을 짠 여단이의 골판문을 설치하고 있다.

안채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창호의 형태 및 크기 등이 결정되는 반면 사랑채는 안마당 보다 외부에서 보이는 입면의 창호를 중요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제천지역의 창호 크기와 형식 등을 정리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비교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는 등 우리나라 전통주거의 연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경표, 한국의 건축문화재-충북편, 초판, 기문당, 서울, 2012
2.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초판, 동녘, 파주, 2012
3. 박명덕, 한옥, 초판, 살림출판사, 파주, 2005
4.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초판, 문운당, 서울, 1998
5. 徐有渠, 林園經濟志, 산수간에 집을 짓고, 안대회 엮음, 초판, 돌베개, 파주, 2005
6. 장기인, 목조, 초판, 보성각, 서울, 1996
7. 제천시지편찬위원회, 제천시지, 초판, 대유출판사, 제천, 2004
8.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초판, 대원사, 서울, 2012
9.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답사수첩, 초판, 동녘, 파주, 2008
10. '99건축문화의 해 충청북도조직위원회, 충북의 건축문화, 초판, 성신기획, 서울, 1999
11. 이완건, 제천시 전통주거의 창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4호, 2013.8
12. www.cha.go.kr(문화재청)
13.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14. www.okjc.net(제천시)

21) 동일한 방의 창호이지만 <그림 12>와 같이 외부로는 토머름을, 대청의 뒷마루 쪽으로는 머름을 짠 것이 특징이다.

22) 안채의 안방, 옷방, 대청, 건넌방의 창호 하부에 토머름을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논문접수 : 2014. 08. 26]

[1차 심사 : 2014. 09. 19]

[게재확정 : 2014. 10. 10]